

# 남원시 농업·농촌 73억 투자

### 농업경영개선 농업인 복지향상 소득보전 지원 등에

남원시가 올해 72억 9,400만원을 들여 농업경영 개선과 농업인복지 향상을 통해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 사고나 질병,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등 소득보전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생산비 증가로 인한 소득 정체,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농업경영의 어려움과 농촌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10개 분야에서 시행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올해 처음 지원이 시작되는 농번기 공동급식 2600만원(11개소)과 여성농업인 생생비우치 3억 1400만원(2,620명)을 포함하여, 농업인 학자금 3억 5100만원(305명), 농업인 안전공제 1억 1100만원(6,500농가), 여성농업인센터 2억 6200만원(2개소), 농작물재해보험 3억 2600만원(2,500ha), 출산농가 도우미와 영농도우미 5400만원(98농가), 컨설팅지원 1억 5000만원(15농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56억여원(28명) 등이다.



남원시가 올해 72억 9,400만원을 들여 농업경영 개선과 농업인복지 향상을 통해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 사고나 질병,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등 소득보전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사진은 경영개선 컨설팅 장면)

특히, 남원시는 농가경영 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사업 외에 자체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 1억원 이상 소득농가 증대로 1216 농업 CEO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지난해 2,516ha로 대폭 늘어났으나 아직도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인식이 부족한에 따라 재해보험의 필요성과 품목별가입시기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가 큰 과수, 시설원예에 대

한 가입률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을 몰라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부사업별 지원계층별 사업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존 사업들에 대한 홍보강화로 농업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천연기념물 제424호 (지리산 천년송)

## ‘지리산 천년송 당산산제’ 17일 오전 11시 남원시 산내면 와운마을에서

지리산의 안녕과 마을 주민들의 풍년을 기원하는 ‘지리산 천년송 당산산제’가 오는 17일 11시에 마을주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하여 구름도 쉬어간다는 남원시 산내면 와운(臥雲)마을에서 개최된다.

지리산 품안 깊숙한 남원 산내면 뱀사골의 구름도 누워간다는 와운(臥雲)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정착한 이후로 5백여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보던 한아재(한아버지) 소나무와 할매(할머니) 소나무에게 매년 음력 1월 10일에 당산제를 지내 오고 있다.

천연기념물 관련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으로 준비되는 당산제는 주민

들이 한달 전부터 정성껏 제주음식을 준비하고 농악단 터울림행사, 천년송 소원빌기 등 성대하게 꾸려 오는 2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와운마을 지리산 천년송 앞에서 열린다.

와운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천년송은 마을의 다산이자 풍요로움의 상징이며, 더 나아가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없도록 지켜주는 수호신의 의미를 갖는다.

마을 당산북으로 와운마을 뒷산에 있는 한아재 소나무와 할매 소나무는 임진왜란 전부터 자생해 왔다고 알려져 있으며 20m 간격을 두고 마주보며 서 있다. 이중 더 크고 오래된 할매 소나무는 지리산 천년송(千年松)이라

는 이름으로 지난 2000년 10월 13일에 천연기념물 제424호로 지정되어 오랜 역사와 더불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높이가 20여미터에 달하고 풀레는 허터 정도이며 가지 끝 사이의 폭은 12미터에 이를 정도로 매우 웅장하다.

지리산에서 들러야 할 필수 명소로 꼽히는 천년송은 연간 3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 오며 천년송의 뜨거운 기운을 얻어가고 있다.

구름도 누워가는 곳, 와운마을, 그 아름다운 곳에서 열리는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는 남원시민 모두의 축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귀농·귀촌사업 10억 편성

###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공간 지원사업 등 신규 추진

임실군이 작년 귀농·귀촌 인구 유치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금년에도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맞춤형 지원사업과 정책을 추진한 결과 귀농귀촌 인구가 2014년 382명, 2015년 647명(437세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각종 실태조사(귀농·귀촌인, 빈집 등)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관련 전문가·민간단체·행정 등 3자로 구성된 「귀농귀촌연구회(임실 희망농업추진단·의 분과별 연구회)」 활동으로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했으며,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성과와 호응에 힘입어 금년에는 전라북도 시군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이자 전년대비 예산증가를 최고 수준인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다양한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한다. 금년에 추진하는 대표적인 신규사업은 귀농·귀촌인 정착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사업(‘주택구입’ 등) 외에도 ‘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사업’ 및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2회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민농촌유치지원’을 금년부터 3년간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해 도시민 유치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 20일 ‘필봉정월대보름 축제’

### ‘굿은 좋은 것이여’ 테마

서른 다섯번째를 맞는 ‘필봉정월대보름축제’가 올해도 변함없이 임실군 강진면 필봉마을에서 20일 개최된다.

묵은 액을 털고 새로운 한해의 대풍년을 기원하며 필봉마을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눴던 ‘필봉정월대보름축제’는 지난 2014년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을 맞아 개최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한국농악의 본질과 함께 나누고 어우러지는 공동체문화의 절정을 체험하고 지구촌 모든 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굿은 좋은 것이여’를 테마로 임실필봉농악보존회(보존회장 양진성)가 주관한다.

필봉농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로 지정된 소중한 ‘마을문화유산’이며 전통적으로 필봉마을에서 행해오던 마을굿 본연의 가치와 형태 그대로를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필봉마

을 동청마당에서 정월대보름의 ‘굿’을 시작으로 복을 기원하는 ‘당산굿’, 마을 공동 우물로 이동해 ‘샘굿’과 각 가정의 안락을 기원하는 ‘바당밭이굿(탈밭이굿)’을 진행하며, 저녁 7시부터는 풍물굿의 연성곡 오라성이 두드러지는 푸진 관굿이 벌어진다.

이어 채곳 호호굿 풍류굿 영산굿 등의 앞굿과 실장고, 잡색놀이, 소고춤, 재능기 영산굿, 노래굿, 대동굿 등 음악, 춤, 극, 놀이 등이 집중되는 시점을 맞아 개최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다양한 체험행사로 소원지 쓰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부럼깨기, 고구마 굽기 등을 진행하며 오랫동안 전통굿판을 지켜온 필봉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굿판을 구성해 마을사람들의 놀이 속에서 함께 나누고 즐기는 행사로 채워질 예정이다.

한편,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임실필봉농악보존회 ☎063-643-1902로 연락하면 된다.

/임실=진홍영기자



## 남원시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남원시 주민복지과는 2016년 사회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를 2월 3일 운봉읍 소석마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한 이웃을 발굴하고 발굴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연계와 조정을 통해 읍면동 복지행정 현황을 강화하고 이·통장, 마을 구심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여 거동불편 어르신, 중증장애인, 산간오지지역 거주자, 실직, 병원비·주거비·공과금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복지정책을 홍보하고 직접 상담한 후 그들에게 맞는 복지급여 지원과 공공 민간영역 등 서비스 연계를 실시함으로써 정부 3.0의 가치를 복지행정에 접목 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2016년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추진기간은 11월까지 10개월로 23개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100개 마을을 방문한다. 방문 주기는 주 3회로 참석자는 이·통장, 노인회장, 지도자, 부녀회장, 주민 등이다. 수행 인력은 주민복지과장을 총괄로 하고 팀장 6급 5명, 팀원 6명으로 구성된 5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팀별 역할은 의사무능력자 급여 등 현황 확인, 주거, 고용, 의료문제 등 종합적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민관협력 구축 등이다.

한편, 2015년도에는 2월부터 11월까지 100개 마을에 264가구를 방문하고 주민 1,188명이 참여하였다. 주요지원성과로는 복합육구를 갖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보건·교육·주거 등 맞춤형서비스를 269건에 91,031,000원을 어려운 대상자에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였다./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블루베리 와인 양산 돌입

### 순창북분자주 기술이전 통해

순창군이 지역의 대표농산물인 블루베리를 이용한 와인개발에 성공하고 본격적 양산에 들어갔다.

이번에 양산에 들어간 블루베리 와인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자장 황숙주)에서 1년여 간 연구를 통해 완성했으며 품질이 우수한 순창의 블루베리와 지역의 토착효모를 활용해 맛과 풍미가 뛰어난 게 특징이다.

특히 생산에 사용된 효모는 식물로부터 분리해 알코올 생산성이 높고 풍미가 우수한 한국형 토착효모로 한국형유용균주의 우수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블루베리 와인을 지역의 대표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근 지역의 주류업체인 순창북분자주에 기술이전을 통해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상품 출시에 나섰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한 상품은 직접 응용한 소비자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블루베리 와인의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상품화에 성공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적 블루베리 주산지인 순창 블루베리 우수성 홍보는 물론 재배면적 확대로 판매가가 하락하고 있는 블루베리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민들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소중한 제사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군은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는 블루베리와인을 증류해 풍미와 향이 우수한 코냐 개발도 추진 중 있다. 와인, 식초, 약주, 음료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된 제품들을 순창군의 특화시설인 토굴형 저온저장고에 저장해 철저한 품질관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에 개발한 블루베리 와인은 순창의 우수한 블루베리와 지역의 우수한 토착효모를 활용한 품질이 우수하다”며 “군은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와 사업에 노력해 농민소득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 보유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은 농림부 향토건강명품화사업과 산업부 한국형 유용균주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순창=구인규 기자

## ‘2016년 순창군민 사회교육’ 개강

### 서예교실 등 9개 과정 운영

순창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16년 순창군민 사회교육’ 개강식이 최근 문화의집에서 열렸다. 이날 개강식에는 황숙주 군수와 이기자 군의회 의장 강사 수강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강식은 강사 9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각 과정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순창=구인규 기자

군민사회교육은 다양해지는 군민들의 여가생활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는 205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생활안정, POP, 도자기공예, 기타교실, 노래교실, 맨스스포츠, 라인댄스, 서예교실 등 9개 과정을 운영한다.

황숙주 군수는 축사를 통해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느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건축물 기간 내 착공 독려

고창군이 건축신고 건축물을 1년 이내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건축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므로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이러한 사실을 최초 건축신고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자동효력이 상실되기 2개월 전 개인별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건축신고를 받는 건축물은 첫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둘째,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셋째,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 넷째,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등의 건축행위를 의미한다.

본인이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군 종합민원과 건축팀(063-560-2401~240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하수처리시설 32억 투입

임실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목적포 주변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31억6,000만원을 투입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나섰다.

그동안 군은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목적포 주변지역에 기존 5개소 하수처리시설 175톤/일을 가동·운영하여 목적포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고, 2013년~2015년에는 운암면 마왕리 일원에 총사업비 33억9,1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10톤/일을 신선했다.

또한 금년에는 총사업비 3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10톤/일을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운암면 운암리, 운정리 일원의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설계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